



즉시 배포용: 2019 년 1 월 17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조기 투표 비용 부담에 대한 **DANI LEVER** 공보국장의 성명서

“연방 정부가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박탈하는 반면, 뉴욕주는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,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신성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. 올해 **Cuomo** 주지사님은 선거일을 주말로 지정하고, 연방 및 주정부 선거를 동시 실시하며, 우편 투표, 당일 투표 및 자동 등록, 조기 투표를 실시하는 등, 민주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 종합 개혁안을 제안하셨습니다.

주정부 및 연방 예비선거를 함께 실시하여 카운티가 2,500 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, 인터넷 세금 혜택을 철폐하여 판매세를 확실히 징수함으로써 지자체에 3 억 9,000 만 달러를 지원하여 조기 투표 비용을 상회하는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